



취업에 강한 동신대 창업까지 잡는다

정부·지자체·민간 11개 ‘창업 프로젝트’
재학생·청년·지역민 등 역량 강화 박차
로컬·에너지·AI·첨단 기술까지 ‘총망라’
아이디어→사업화→글로벌화 창업사다리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창업’이라는 또 하나의 엔진을 장착하며 청년들의 일자리 영역을 전방위 확대하고 있다.

14일 동신대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의 굵직한 창업 지원 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며 대학 안팎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동신대가 각 기관 지원을 받아 가동 중인 창업 프로젝트는 ▲앵커사업 창업혁신허브센터(전남도) ▲모두의 창업(중소기업벤처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사업(중소기업벤처부) ▲AI 창업교육(교육부) ▲창업인재양성사업(전남광주통합특활시)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전남광주통합특활시) ▲대학 사회적경제 강화(전남광주통합특활시) ▲대학생 무한도전 CES 프

로젝트(전남광주특활시) ▲벤처창업원정대(전남광주통합특활시)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사관학교(나주시) ▲하나소셜벤처 유니버시티(하나금융) 등 11개에 달한다.

분야도 로컬·에너지·AI·첨단기술·소셜벤처·글로벌 창업까지 총망라하고, 지원 대상도 동신대 재학생을 넘어 지역 청년, 지역민까지 확대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앵커사업 창업혁신허브센터를 통해 5년 간 연간 7억9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지역연계형 실전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첨단기술 창업 역량 강화, 유망기술 사업화와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에

도 선정돼 지역 자원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연간 1억9천만원씩 5년간 지원받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사관학교(직주박비)를 운영하며 지역 핵심산업인 에너지분야 청년 창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동신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가 주도 창업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운영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누구나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학 안팎으로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AI시대를 겨냥한 창업 교육도 본격화한다. 교육부의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과 연계해 2028년까지 AI창업 교과목 4개를 개발, 창업 교육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활시가 지원하는 ‘대학생 무한도전 CES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혁신 현장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사회적경제 강화 운영, 벤처창업원정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소셜벤처 유니버시티 프로젝트도 가동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실전 창업,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동신대는 창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각 프로젝트를 연계해 ‘아이디어 발굴→교육→실전 프로젝트→사업화→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창

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취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동신대의 역량에 창업을 결합해 학생들의 미래 선택지를 넓히겠다”며 “취업을 원하는 학생은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도록 교육하고 창업을 꿈꾸는 학생과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스마트 양식장 방향 제시

전남대학교 김상훈·김태호 교수팀
복합소재 구조·센서·보호 코팅 연계

전남대학교 김상훈·김태호 교수연구팀이 해양환경에서 양식장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소재 통합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해양공학(ENGINEERING, MARINE) 분야 상위 1% 국제학술지 ‘Ocean Engineering’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00-2025년 발표된 관련 논문 288편을 종합 분석했다. 양식장의 빠른 손상과 변형을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 해양생물 부착과 부식을 줄이는 보호 코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핵심은 3개 기술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센서 삽입에 따른 구조물의 강도 변화, 코팅과 바탕 소재의 접착성, 생물 부착이 센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검토해야 시설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정 기자



김상훈 교수



김태호 교수

“새로운 100년을 향해” 18일 조선대 개교 80주년 기념식

해오름관서 ‘CSU 미래 비전’ 선포
최초의 ‘민립대학’ 정신 계승 모색
오후 6-8시 ‘한마음콘서트’도 개최

7만2천여 설립동지의 뜻과 정성으로 시작된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민립대학 8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조선대학교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해오름관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의 지난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조선대는 1946년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7만2천여 설립동지의 뜻과 정성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지역민이 직접 뜻을 모아 대학을 세운 민립대학



조선대 ‘시그니처 포토존’ 공개 조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국제관과 중앙도서관 사이에 ‘CSU 시그니처 포토존’을 조성했다. 대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학내 구성원과 방문객에게 소속감과 추억을 제공하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형물은 가로 3.5m, 높이 1.2m, 두께 0.7m 규모로 제작됐다.

<조선대학교 제공>

정신을 바탕으로 80년 동안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교육·연구와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개교 80주년 기념식은 조선대가 걸어온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민립대학의 정신을 오

늘의 시대에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함께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다. 조선대는 지난 80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과 국가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해오름관에서는 개교 80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CSU 한마음콘서트’가 열린다. 조선대 학생 밴드 ‘캐리반’과 공연 예술무용과 학생들, 지역의 동구 시민합창단이 참여하며 초청가수 인순이·허각·김산옥이 무대에 올라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인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의 80년은 교육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7만2천여 설립동지의 뜻이 세대를 이어 현실이 되는 역사”라며 “민립대학으로 출발한 정신을 굳건히 이어 받아 앞으로의 100년은 사람과 지역의 가능성을 키우고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대학으로 더 큰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 개교기념일은 9월29일이며 대학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학술행사와 문화공연, 역사 기록·전시 등 민립대학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Canon Store

추석 선물

플프레임 바디 + L렌즈 동시 구매 시 10만원 추가 할인

행사 대상 바디
R1, R3, R5MKII, R5, R6MKII, R6MKIII, R8

행사 대상 렌즈
RF-L 렌즈 전상품

개논스토어

본점 | 062) 522-2000
지점 | 062) 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광주광역시 지정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관 포 개 발

(주)한양주택관리

당사는 대표자의 오랜 주택관리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빌딩·오피스텔·주상복합·원룸 등 모든 건물의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수납·연체자관리·청소·경비·승강기·소방·물탱크
청소·소독** 등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이범석
(주택관리사)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30번길 8(문흥동)
대표전화 | 062.262.1945

사업내용

건물관리업
빌딩·공동주택·오피스텔·원룸
청소·용역업
경비·용역업
승강기관리업
방역소독·물탱크청소업